

한국의 목록 표준화를 위한 방안 연구

- 목록 관련 규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tandardization of Korean Cataloging Records

: Focused on Rules for Cataloging

도 태 현 (Tae-Hyeon Doh)*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기술규칙의 문제 |
| II. 목록규칙 사용 현황과 표준화 필요성 | V. 목록 디스플레이양식에 관한 문제 |
| III. 표목에 관한 규칙의 문제 | VI. 목록규칙과 MARC 포맷의 통합 필요성 |
| | VII. 맺는 말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KCR 3판, KORMARC 기술규칙, KORMARC 포맷 등 한국에서 편목에 적용되는 규칙의 다원화 현상과 이러한 규칙들의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표준 통합목록규칙 제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대안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 1) 무기본표목원칙을 정립하고 MARC 포맷에서 이 원칙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2) 목록의 표준화와 검색효율의 제고를 위해 표목에 관한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
- 3) 현행 기술목록규칙들을 자동화목록의 환경과 서지기술원칙에 입각하여 통일하고 목록자에 의한 규칙의 임의 적용이나 판단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 4) 온라인목록 디스플레이양식을 통일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
- 5) 전통적인 목록규칙과 MARC 포맷의 통합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problems of rules for cataloging currently used in Korea such as KCR 3rd ed., KORMARC Description Rules, and KORMARC format, and to propose the methods solving the non-standardization of Korean cataloging records as follows :

- 1) No-main heading principles should be established so as to be applied to MARC format.
- 2) Rules for headings or access points should be prepared for retrieval effectiveness and standardization of catalog records at once.
- 3) Description rules of cataloging currently used in Korea should be coordinated in accordance with MARC system and principles of bibliographical description.
- 4) Unifying the format for CRT screen to display online catalog records are needed.
- 5) Conventional cataloging rules and MARC format should be coordinated.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인문과학부 문헌정보학전공 부교수

I. 머리말

동일한 목록규칙을 사용하는 도서관의 수가 많을수록, 지역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편목비용이나 목록정보 공유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 때문에 목록규칙의 국제적 표준안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실로 국제표준서지기술법(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이하 ISBD라 함), UNIMARC와 같은 국제 표준안들이 만들어졌다. 국가별로는 자국의 표준 목록규칙과 MARC 포맷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각국의 국가적 표준을 제정하는데는 국제적 표준이 준거의 틀이 되고있다.

해방 이후 우리 나라에서도 표준 목록규칙의 편성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오늘날의 한국목록규칙(이하 KCR이라 함)으로 계승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이하 KORMARC라 함)의 개발과 더불어 KORMARC 기술규칙이 만들어지고, 서양서의 편목을 위하여는 영미목록규칙이 많이 사용됨으로써 편목과 관련된 규칙의 다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무기본표목이론으로 야기된 전통적 기본기입방식의 와해와 표준적 대안의 부재, KCR 3판¹⁾이나 KORMARC 기술규칙의 표목에 관한 규칙 미비 등은 목록의 표목부에 관한 무원칙 상태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우리 나라에서 작성되는 목록레코드의 표준화나 도서관간의 효과적 공유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기존의 목록규칙들이 카드목록을 비롯한 인쇄목록 중심의 규칙이라는 사실은 MARC 포맷과 온라인목록에 부적절한 면을 노출하고 있으며, 특히 카드목록에 비하여 MARC는 그 구조가 다르고 입력요소가 더욱 다양화됨으로써 MARC 형식의 목록을 위해서는 기존의 목록규칙 외에 일련의 규정들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추가 규정들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과 같은 MARC 포맷²⁾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필모는 AACR 2판과 MARC에 대한 비판과 혁신적 갱신을 주장한 문헌들에 대하여 다음

- 1) 韓國圖書館協會 制定, 『韓國目錄規則』. 3版.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83. 1990년에 『한국목록규칙』 3.1판으로 수정되었지만 이것은 3판과 비교하여 기본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특별히 3.1판을 구분하여 지칭할 필요가 없는 한 이들을 모두 KCR 3판으로 통칭한다.
- 2) 카드목록의 체계가 전통적 목록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서지데이터들을 담은 틀이라면 MARC 포맷은 기계가 독형 서지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틀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본문문에서 MARC 포맷이라 함은 단순한 MARC 구조뿐만 아니라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단행본용: KSC5867』.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3)이나 USMARC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Network Development and MARC Standard Office, USMARC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Including Guidelines for Content Designation, 1. 1994 ed. Washington: Library of Congress, 1994) 등과 같이 서지레코드를 MARC 레코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모든 규칙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AACR2와 MARC의 갱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온라인 목록은 편목규칙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한다고 주장하고, 한편 Tucker는 AACR2R에 대해서 표목부와 서지기술부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AACR2R의 갱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MARC의 미래에 대해서 Weihs와 Howarth는 MARC레코드 시스템을 위해서 코딩, 레코드와 필드의 길이 및 접근점의 선택과 형식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Attig은 MARC 포맷과 AACR을 갱신해서 이들을 통합하여 단일체계의 AACR2-MARC를 제안했으며, Boll은 AACR2와 MARC를 갱신하여 이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서 "AACR3"을 편찬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Gorman은 AACR2와 MARC를 획기적으로 개정하고 이들을 통합해서 "HYPERMARC"를 편찬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들도 모두 갱신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³⁾

우리 나라 목록환경의 현재적 상황도 카드목록을 전제로 한 기존의 목록규칙을 자동화목록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정함과 아울러 도서관별로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목록규칙들을 통합하고, 표목에 관한 규정을 완비하고, MARC의 구조와 데이터의 입력을 위한 규정을 포괄하는 표준적 통합목록규칙⁴⁾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편목을 위한 도구로서 국내 도서관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KCR 3판, KORMARC 기술규칙, KORMARC 포맷 등을 중심으로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기본 표목을 비롯한 표목의 형식에 관한 문제, 기술규칙 불일치의 문제, 온라인목록의 디스플레이 양식 문제, 전통적 목록규칙과 MARC 포맷의 통합 필요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표준적 통합목록규칙 제정을 위한 기초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II. 목록규칙 사용 현황과 표준화 필요성

<표 1>은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 『회원교편람』에 수록된 회원도서관 현황표를 중심으로 이 도서관들의 목록규칙 사용 현황을 집계한 것이다.

3) 정필모, "온라인환경에서의 편목법", 《圖書館學論集》 第25輯(1996 겨울), p. 16.

4) 기존의 목록규칙과 MARC 포맷을 통합했을 때 이를 '목록규칙'이라고 할 것인지 또 다른 이름을 붙여야 할 것인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별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을 때 '통합 목록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4호)

〈표 1〉 사립대학도서관 목록규칙 사용 현황⁵⁾

규칙 자료	KCR			AACR			MARC기술규칙		기 타		계
	2판	3판	미상	1판	2판	미상	KOR-MARC	US-MARC	각종고서 목록규칙	미상	
동양서 (%)	6 (6.38)	40 (42.55)	3 (3.19)		5 (5.32)		36 (38.30)			4 (4.26)	94
서양서 (%)	3 (3.19)	8 (8.51)	1 (1.06)	3 (3.19)	43 (45.74)	1 (1.06)	6 (6.38)	24 (25.53)		5 (5.32)	94
한고서 (%)	4 (4.26)	13 (13.83)	2 (2.13)		2 (2.13)		10 (10.64)		11 (11.70)	52 (55.32)	94

위 표에 의하면 동양서 편목을 위해 KCR 3판을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이 40개관으로 가장 많으며 KORMARC 기술규칙을 사용한다고 한 도서관도 거의 비슷한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서양서 편목을 위해 영미목록규칙(이하 AACR이라 함) 2판을 사용하는 도서관이 43개관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USMARC를 사용한다는 도서관이 24개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USMARC 목록레코드는 주로 AACR 2판에 의해 기술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사된 대부분의 도서관이 서양서의 편목을 위한 기술목록규칙으로 AACR 2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도서관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관중별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MARC 형식은 <표 2>와 같다.

〈표 2〉 적용 MARC 형식별 기관수(단행본 기준)⁶⁾

(단위 : 기관 수)

구 분	국 내 자 료					국 외 자 료			
	KOR-MARC	US-MARC	기타 MARC	비적용	계	KOR-MARC	US-MARC	기타 MARC	계
공공도서관	297	0	0	2	299	84	0	0	84
대학도서관	276	1	8	11	296	128	135	8	271
전문 및 특수도서관	186	3	17	46	252	106	28	19	153
계	759	4	25	59	847	318	163	27	508

5)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회원교편람』. 서울 :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1999. pp.18-205에서 발췌하여 집계.

이 표에 담긴 데이터들은 본서의 도서관 현황표에 기술되어 있는 그대로를 옮겨 집계한 것으로서 일부 부정확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목록규칙으로 단지 KORMARC라고만 표시하거나 USMARC 기술규칙이라고 표시해 놓은 도서관들도 있었다. 이는 KORMARC 혹은 USMARC 포맷으로 목록레코드를 입력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기성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러한 포맷으로 작성된 목록레코드를 내려 받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본 장은 국내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목록규칙이 없음을 확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계수치로도 충분히 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6) 韓國圖書館協會, 『한국도서관통계』.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98. p.175.

모든 공공도서관은 국내의 자료 구분 없이 KORMARC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이나 특수도서관의 경우도 국내자료는 대부분 KORMARC를 사용하고 국외자료는 일부 USMARC나 기타 MARC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MARC 형식으로 편목하고 있으며, 기술목록규칙으로는 KCR 3판 외에 KORMARC 기술규칙을 사용하는 도서관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서양서 목록을 위해서는 AACR을 비롯한 기타 목록규칙을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많음도 알 수 있다. 국내 도서관들이 KCR 3판, KORMARC 기술규칙, AACR 등 여러 목록규칙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볼 때 이들 도서관들에서 작성되는 목록레코드의 표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양수연도 국내에서 작성되는 목록레코드의 형태가 표준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목록규칙들이 KCR 3판과 KORMARC 기술규칙으로 이원화되어있는 것, KCR 2판과 KCR 3판을 혼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⁷⁾

한국의 표준 목록규칙으로서 KCR 3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록규칙 사용의 다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KCR 3판이 자동화목록 도입과 더불어 표준 목록규칙으로서의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KCR 3판이 표준 목록규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는 KCR 3판이 출판된 이후 1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고 그 동안 도서관의 목록 환경은 카드목록 중심에서 MARC 중심으로 크게 바뀌었다. 이에 비하여 KCR 3판은 MARC나 온라인 환경에서의 목록보다는 카드목록을 비롯한 수작업 목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는 KCR 3판은 그 자체가 미완성이다. 표목의 형식이나 기본표목에 대하여 표목올림지 시편에 나타나고 있는 예 외에는 참고할 만한 규정이 없다.

셋째, 국내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자동화목록 포맷으로 KORMARC를 사용함으로써 이 포맷에 적용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제정한 KORMARC 기술규칙을 사용하는 도서관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KCR 3판의 일부 규정은 KORMARC 포맷에 서지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며, KORMARC 기술규칙과 상치되는 곳이 있다.

표준 목록규칙으로서 KCR 3판의 이러한 상황과 국내 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목록규칙의 다원화 현상은 목록레코드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변화된 목록 환경에서 국내의 모든 도서관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적 목록규칙의 정비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7) 양수연, "분담목록시스템을 위한 목록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이화여자대학교), 1995, pp. 67-68.

Ⅲ. 표목에 관한 규칙의 문제

1. 기본표목의 문제

1) 기본기입원칙의 개념과 변천

1961년 파리에서 개최된 목록원칙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저자명 하에 기입을 만들고, 이들이 부적당 또는 불충분할 경우에는 서명(표제)기입을 하도록 한’ 기본기입에 관한 원칙성명을 결의하고 이를 참가국의 목록규칙 제정 및 개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다.⁸⁾ 이 결의사항을 수용하여 각국의 도서관계는 목록규칙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였으며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AACR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기본기입원칙은 국제적 경향이 되었다.

기본기입원칙은 하나의 문헌에 대하여 저자, 서명, 주제 등 여러 종류의 목록을 작성할 때 그 중 한 목록만을 완전하게 기술하고 다른 목록들로부터 이 완전한 기술을 한 목록으로 참조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단위카드시스템(unit card system)의 기원이 된 미국의회도서관의 인쇄카드 배포⁹⁾나 이후의 카드 복제기술 발달은 한 문헌에 대한 모든 종류의 목록들이 동일한 수준의 서지기술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따라서 불완전한 서지정보를 갖고 있는 목록으로부터 완전한 서지정보를 갖고 있는 목록으로 참조할 필요성은 사실상 없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제목록원칙회의에서 결의된 기본기입원칙은 AACR, USMARC 등의 영향력 있는 목록 관련 규칙이나 목록이론에서 주류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기본기입원칙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일본에서 이에 대한 가장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도서관협회에서 출판된 『일본목록규칙』(이하 NCR이라 함) 1952년 판은 기본기입원칙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몇몇 사서들은 기본기입의 장점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적 방법을 지지하였는데 이것은 기술독립방식(Description-Independent System)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대표적 주장자는 고이찌 모리였으며 그는 “기술과 표목의 분리”라는 제목의 1955년 논문에서 기본기입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의 주장은 그후 오오사카 지역의 사서들에 의해 지지를 받았으며 기술독립방식의 이론은 점차 확립되었다. 모리에 따르면 기술독립방식은 단위카드를 복제하여 복수기입의 목록을 유지하는 중소규모 도

8) A. H. Chaplin, “국제도서관협회연합(IFLA)목록원칙 국제회의의 예비공식보고”, 이재철 역, 《도협월보》 v. 3, n. 3(1962. 7), p. 12.

9) 미국의회도서관의 인쇄카드 배포는 1901년부터 이루어졌다. Bhodan S. Wynar,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7th ed. Littleton, Colorado : Libraries Unl., 1985. p. 8.

서관을 위하여 개발된 것이다. 그는 저자, 서명, 주제카드가 각각 똑같은 서지정보를 갖는 목록에서는 기본표목을 기록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¹⁰⁾

그후 1970년 일본도서관협회의 제1차 자료조직에 관한 전국회의에서 기술독립방식은 기본기입방식과 절충되어 기술부는 표목 없이 기술하고 기본표목을 포함한 모든 표목을 표목지시 사항에 기록하는 무표목단위카드방식(No-Heading Unit Card System)으로 제안되었다. 이러한 무표목단위카드방식은 NCR 1977년 판에서 기술단위카드방식(Description Unit-Card System)으로 바뀌었다.¹¹⁾ 이러한 원칙은 NCR 1987년 판¹²⁾과 그 개정판인 1994년 판¹³⁾에서도 기술단위방식(기술유니트방식)으로 계속되고있다.

AACR은 초판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기본기입원칙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될 것을 예견하고 있었지만 이 원칙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이 규칙이 복수기입목록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기본기입을 부기입으로부터 구분 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목록작업에 있어서 이 구별이 가장 어려운 작업 중의 하나이므로, 그 목록에 모든 필요한 기입이 마련되어 있고 또 단일카드 제도를 사용할 경우 하나 하나의 기입에 주어진 기술사항도 동일한데 왜 필요한가를 질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필요성은, 복수기입목록에 있어서도 목록 되는 도서 이외의 도서를 단수기입에 의하여 식별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단 한가지 이유 때문이다.¹⁴⁾

그러나 기본기입원칙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 제기는 AACR 2판의 개정과정에서도 재현되었는데 그 상황을 고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규칙의 개정과정에서 일찍부터 대두된 중요한 문제는 기본기입 개념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었다. 영미목록규칙 2판의 골격으로서 기본기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목록이론에서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 모든 중요한 목록들에서 그것이 확보하고 있는 지위, 인쇄형 책자목록이나 서가배열, 단일기입에서 기본기입의 실용성 등을 지적하였다.

AACR 2판에서 기본기입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기입은 목록이 기계화되기 이전의 기술적인 한계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며, 현재의 기술적 상황은 많은 대등한 접근점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은 기입의 선택에 관한 규칙을 빼고 접근점의 형식에 관한 규칙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¹⁵⁾

10) Tadayosh Takawashi, Tsuitomu Shiota, Zensei Oshiro, "The No-Main-Entry Principle :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Nippon Cataloging Rules",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Quarterly*, v. 9, n. 4(1989), pp. 68-69.

11) 위의 논문, pp. 72-73 참고

12) 日本圖書館協會目錄委員會 編, 『日本目錄規則』. 1987年版.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87.

13) 日本圖書館協會目錄委員會 編, 『日本目錄規則』. 1987年版 改訂版.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94.

14)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 et al. prepare, 張一世, 金斗植 共譯, 『英美目錄規則』. 北美版 改訂版. 서울: 景仁文化社, 1974. p. 2.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AACR 2판도 여전히 기본기입원칙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는데 AACR 2판의 서문에서는 그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Part II(Headings, Uniform Titles, and Reference)의 규칙들은 기술되는 자료마다 하나의 기본기입이 만들어지고 이 기본기입은 부출기입들에 의하여 보조되는 원칙에 따르고 있다. 대등 표목(기술되는 각 자료를 위하여 복수의 동등한 기입을 만드는)의 이용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야기될 상당한 영향들에 대하여 검토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여 이 규칙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도서관들이 기본기입과 다른 기입들을 구별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그와 같은 도서관에서는 21장을(Choice of Access Points) 특정한 경우에 요구되는 모든 기입들을 결정하는데 지침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¹⁶⁾

또한 AACR 2판의 편자 중 한 사람이었던 고먼은 “사실상 (AACR 2판에서) ‘~ 아래 기본기입을 만들어라’, ‘~ 아래 부출기입을 만들어라’라는 지시들은 ‘~ 아래 기입들을 만들어라’라는 지시로 생각할 수 있고, 기본기입의 우월성이 기계시스템에 기반을 둔 목록규칙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¹⁷⁾고 하였다.

AACR 1988년 개정판에서도 기본기입과 부출기입의 구분은 여전히지만 위와 같은 입장 변화로 미루어 볼 때 AACR에서도 그 구분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 같다.

자동화목록에서의 기본기입과 부출기입의 구분은 더욱 의미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카드목록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문헌에 대하여 기본기입목록과 다수의 부출기입목록들을 작성하고 이렇게 여러 벌로 만들어진 목록의 표목에 의해 목록이 검색되도록 하였지만 자동화목록에서는 한 건의 자료에 대하여 하나씩 만들어진 한 벌의 목록레코드들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레코드의 기본표목이나 부출표목이 되는 용어 혹은 그 외의 검색요소들이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동등한 검색의 키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USMARC를 비롯한 많은 MARC 포맷들은 여전히 기본표목필드를 두고 있으며 이들을 부출표목과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윈크는 “오늘날 목록에 있어서 기본기입의 개념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고, (MARC 포맷이나 AACR 2판과 같은) 현재의 규칙들이 개정될 때는 그 용어집에서 제외되거나 최소한 수작업 목록의 환경에서 적용되는 정의로 한정되어야 한다”¹⁸⁾고 함으로써 기본기입원칙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15) Michael Gorman,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Second Edition,"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 22, n. 3(Summer 1978), p. 218.

16) Michael Gorman and Paul W. Winkler ed.,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Chicago : ALA, 1978. p. 2.

17) Michael Gorman, 앞의 논문, 동면.

18) R. Conrad Winke, "Discarding the Main Entry in an Online Cataloging Environment" *Cataloging and*

2) 한국의 목록규칙에서 기본기입원칙의 변화

근대 이전의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한적목록들은 주로 책자형 단일기입 목록이었으며 전통적 목록기입방식은 서명을 맨 먼저 기술하는 기입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후부터 한국도서관협회의 KCR 초판이 간행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박봉석의 『朝鮮東書編目規則』도 서명을 가장 먼저 기입한 서명목록을 사무용기본목록으로 하였다.¹⁹⁾

다음 예는 『朝鮮東書編目規則』에 의한 서명카드와 저자카드의 예이다.²⁰⁾

書名書票(서명카드) 예

금잔디	금	잔디-李朝閔秀漢詩選集
		金億(岸曙)譯編
		서울 東邦文化社 4280
		1冊 洋裝 小 188頁

著者書票(저자카드) 예

김억	金億(譯編)
	금잔디-李朝閔秀漢詩選集
	서울 東邦文化社 4280
	1冊 洋裝 小 188頁

예와 같이 『朝鮮東書編目規則』에서 저자목록은 기본목록인 서명목록을 단위카드로 하여 작성하였다기보다 서명목록의 저자명을 표목의 위치에 옮겨 기입함으로써 작성하였다. 그 외 공저자, 번역자, 전기서의 피전자 등을 위한 목록들도 기술사항 중에서 해당 항목을 표목의 위치에 옮겨 기입하고 표목의 위치로 옮긴 것 외의 나머지 기술사항들은 원래의 순서대로 기입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목록카드를 分立書票(카드)라 하였다. 따라서 『朝鮮東書編目規則』은 서명목록을 단위카드로하여 부출목록을 작성한 서명기본기입방식과는 그 체계가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표목과 기술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을 가장 먼저 기입한 기술사항을 중심으로 기본목록을 작성하고 그 외에 저자, 공저자 등 표목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들도 한 번씩 앞으로 내어 표목의 위치에 기재하여 줌으로써 이러한 항목들에 의해서도 배열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것은 기술사항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순서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복합주제를 표현하는 문장 중의 키워드들을 한 번씩 모두(冒頭)에 내어줌으로써 이들 각각을 배열의 1차적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한 PRECIS(Preserved Context Index System)의 기법과 유사한 면이 있다.

파리국제목록원칙회의의 결의안을 전적으로 수용한 KCR 초판과 수정판은 전형적인 저자명

Classification Quarterly, v. 16, n. 1(1993), pp. 58-59.

19) 朴奉石 編, 『朝鮮東書編目規則: KCR』. 서울: 國立圖書館, 檀紀 4281(1948). p. 7.

20) 위의 책. p. 35.

기본기입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KCR의 저자명기본기입원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은 다음 인용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저자기입이 목록기입의 한 종류로 하나 더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저자기입을 종래의 서명기입을 대신해서 영미계목록법과 같이 단일기입제 목록의 기본기입이나 복수기입제목록의 유니트카드로 삼는 방식에 대해서는 국내 일부 목록전문가들의 적지 않은 저항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도협은 국제적 추세를 따른다는 명분으로 영미계목록법을 본받아 이른바 저자주기입의 목록규칙을 제정하여 펴내기에 이르렀다. 본 한국목록규칙의 1962년의 예비판, 1964년의 1판(이하 KCR1이라 약칭함), 1966년의 수정판 및 1970년의 수정판 재쇄가 바로 그것들이다.²¹⁾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은 KCR 3판이 발행됨으로써 다시 한번 서명기본기입원칙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KCR 3판이 서명기본기입원칙으로 변화하게 된 사정을 그 편찬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960년대 초기부터 일기 시작한 목록의 전산화작업은 절대성이 없는 저자주기입법(영미목록법에서 말하는 기본기입법)에 대해 서구에서도 회의를 품고 이견을 제기하는 학자를 나오게 하더니 1970년대에 들어서서 마침내 기본기입의 표목 없이도 도서의 서지적 식별이 가능한 목록기입법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제정해서 1974년에 펴낸 국제표준 서지기술법(ISBD)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도서의 제일 가는 식별요소를 서명으로 삼고 항상 이를 기술의 맨 머리에 적고 저자표시를 나중에 적는 방식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동양의 전통적 서명주기입법과 일치하는 목록기입법으로 변한 셈이 되었다. 서명이 고유명사로 굳어질 정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도서의 품명인 서명을 그 도서의 첫째가는 식별요소로 삼아 그것을 앞세워 기입하는 서명주기입법은, 목록 발달사상 저자주기입법보다 한 걸음 더 발달된 기입형태이며, 저작에의 직접 접근책이란 점에서 목록이론상 간접적으로 저자명을 한 단계 거쳐서 저작에 접근하는 영미계목록을 위시한 서구의 저자주기입법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라고 우리는 재평가한다.²²⁾

위 내용과 같이 KCR 3판은 ISBD에 근거한 서지기술부를 중심으로 단위카드를 만들고 이 단위카드에 검색의 키가 되는 각종의 표목을 첨부함으로써 각종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KCR 3판은 목록의 기술부와 표목부가 각각 독립된 방식으로 존재하는 기술단위방식의 목록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21)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記述 標目올림指示篇』, 3.1版.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90. p. 5.

22) 위의 책. pp. 5-6.

3) 기본표목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

KCR 3판은 현재 미완성 판이지만 앞으로 표목부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져 완성된다 하더라도 기본표목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 기술단위방식을 지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NCR 1977년 판이나 1987년 판 및 1994년 개정판의 체제²³⁾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표목에 관한 규정이 없기는 KORMARC 기술규칙도 마찬가지이다.

NCR에서 일찍부터 무기본표목의 기술단위방식이 논의된 것은 기본기입원칙의 카드목록에서 표목부가 복잡한데 기인하였지만²⁴⁾ 특히 이러한 무기본표목원칙이 자동화목록의 환경에서도 쉽게 수용될 수 있는 것은 Japan MARC 포맷이 갖는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Japan MARC 포맷은 기본적으로 UNIMARC와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²⁵⁾ UNIMARC는 기본기입의 개념이 대단히 약화된 구조²⁶⁾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 나라의 대부분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MARC 포맷은 USMARC 계열의 포맷이며 이들 포맷에는 기본표목을 위한 독립된 필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말하자면 목록이론상 기본표목의 불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현재 표준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 기본표목 선정에 관한 규칙조차 없는 실정이지만 KORMARC나 USMARC 포맷으로 목록레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현장의 실무에서는 여전히 기본표목을 선정하고 기입해야 하며, 또한 개별 도서관의 판단에 따라 기본표목이 입력된 MARC 레코드가 도서관간에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다.

KORMARC 포맷은 그 형태상으로 볼 때 KCR 3판과는 기본표목에 관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목록의 비표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표목에 관한 국가적 통일안의 확정이나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적 표준안이 무기본표목원칙을 수용한다면 특히 MARC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 23) 이 규칙들은 기술, 표목, 배열에 관한 규칙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표목부에는 기본표목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1987년 판과 그 수정판(1994년)에서는 표목부의 부칙으로 “단일기입체 목록을 위한 표목선정표”를 두고 있다.
- 24) 일본의 목록에서 기본표목을 기입할 경우 이를 주로 한자로 기재하고 그 위에서 다시 로마자나 가나로 번자하였다. 이를 단위카드로 하여 부출표목을 기입하려면 그 위에 다시 한 줄을 잡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표목부가 복잡해진다. Tadayoshi Takawashi, Tsutomu Shihota and Zensei Oshiro, 앞의 논문, p. 69.
- 25) 吳東根, “編目規則과 MARC 포맷에 있어서 東洋資料의 書誌의 記述에 관한 比較分析”, 博士學位論文(中央大學校), 1991, p. 38.
- 26) UNIMARC는 목록에서 1차적인 접근점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기본기입의 개념이 대단히 약화되었다. UNIMARC에서 기본기입의 개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며, 7xx필드에서 제 1지시기호 1, 제2지시기호 2를 사용하여 기본기입을 기술토록 하였으며 700, 710, 720필드를 기본기입필드로 정의 하였다. 형태적으로 보면 기본기입이 부출기입과 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이경, “UNIMARC형식”, 김태수 [외저], 『기계가독목록의 이해』. 서울: 문헌정보처리연구회, 1996. pp. 290-291.

우선 기본기입원칙이 채택되고 있는 현행 MARC 포맷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무기본표목원칙에 기반한 포맷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이는 국제적 합의에 근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목록레코드의 유통과 공유의 범위가 국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기본표목원칙 도입을 위한 MARC 포맷의 개정에는 현재의 1XX 기본표목(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통일서명)필드의 처리가 중심 과제가 될 것이다. 100, 110, 111 외에 130 기본표목-통일서명필드도 없어질 것이며 통일서명이 기술사항이나 접근점으로서 필요하다면 현재의 240 필드와 730필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45 서명저자사항필드는 서명이 기본표목임을 표시하는 일부 지시기호만 변경함으로써 그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무기본표목원칙이 도입되어 현재의 1XX 기본표목필드가 없어지게 되면 이 필드를 적절한 용도로 전환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USMARC 계열의 MARC 포맷은 0XX필드와 2XX필드, 5XX필드가 비교적 복잡한 편에 속하지만 그중 0XX필드가 더욱 혼잡한 편이다. KORMARC KS 포맷의 0XX필드에는 제어정보, 식별정보, 분류기호²⁷⁾ 등 서로 다른 성격의 필드들이 섞여 있다. 따라서 현재 0XX필드에 속해 있는 특정 유형의 데이터나 데이터 군을 비워지게 될 1XX필드로 옮겨서 새로 배정하는 것이 0XX필드의 복잡성 문제를 해소하고 1XX필드를 활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식의 개정은 기존의 포맷을 크게 흐트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도서관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UNIMARC는 USMARC 포맷의 0XX필드에 속하는 데이터를 0XX 제어/확인블록, 1XX 코드화된 정보블록, 6XX 주제분석블록 등으로 분산하여 배정하고 있으며 기술정보들은 2XX필드에 집중시켜놓고 있다.²⁸⁾

무기본표목원칙의 MARC 포맷과 관련한 국제적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목록작성의 연속성과 이미 작성된 목록의 효율적 변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현행 MARC 포맷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기본표목원칙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경호는 국립중앙도서관이 CD-ROM판으로 배포하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의 개선을 위하여 245 서명저자사항필드에는 서명사항만 남겨놓고 저자사항을 독립시켜 기존의 기본표목필드였던 1XX필드에 기술하되 단순히 서지적 기술사항으로만 기술하고, 1XX필드에 기술된 저자는 다시 7XX필드에서 모두 동일한 접근점으로 하여 표목의 형식으로 기입하도록 제안하였다.²⁹⁾

27) 현규섭은 이것을 제어번호, 부호화정보, 서지통정번호, 지식기호 등의 명칭으로 구분하였다. (玄圭燮, 『自動化目錄法序說: KORMARC 포맷을 중심으로』,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6. p. 48, 49, 64, 75 참고) 참고로 USMARC은 여기에 49개의 필드가 들어 있으며 KORMARC에는 32개의 필드가 포함되어 있다.

28) 김이경, 앞의 책. pp. 274-307.

이 안은 현재의 KORMARC 포맷을 크게 흐트리지 않고도 전환이 가능한 방법이며, 또한 1XX에 저자사항을 독립된 필드로 기술하더라도 7XX필드의 그 것과 형태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필드는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1XX필드에 기술되는 저자사항이 직접 접근점이 되지 않고 기술사항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라면 현재 245필드로부터 구태여 독립시켜야 할 필요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한 MARC 포맷에서 필드의 태그번호 순서가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하더라도 ISBD의 기술순서상 서명사항의 뒤에 배치되어 있는 저자사항을 245 서명필드보다 앞선 1XX필드에 배정하는 것도 자연스럽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규섭은 245 서명저자사항필드에서 저자사항을 독립시켜 새로운 필드를 설정할 필요성 및 그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³⁰⁾ 이 안은 245 서명저자사항필드에는 서명사항만 남기고 248, 249, 251(기본표목이나 부출표목으로 제시되는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등의 저자표시), 252(표목이나 부출표목으로 제시되지 않는 저자표시) 등의 필드를 설정하여 저자사항을 독립시키도록 하며 이들 각각에서 연관부출식별자 \$8을 이용하여 1XX 기본표목과 7XX 부출표목을 자동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래 이것은 무기본표목원칙과는 상관없는 저자사항의 독립을 위한 안이지만 여기에서 저자사항으로부터 직접 표목을 생성할 때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의 구분을 없애고 1XX필드를 비워둔다면 무기본표목원칙 도입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의 MARC 포맷을 전혀 흐트리지 않고 무기본표목원칙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은 모든 자료에 대하여 서명기본기입형식을 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자료를 서명기본기입형식으로 입력하되 본래 저자명기본기입형식으로 기입해야 했던 목록레코드의 저자사항 기술은 저자명기본기입 때에 기술하던 규칙대로 하고, 저자명과 관련된 접근점들은 모두 7XX 저자명부출표목 필드에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안은 무기본표목을 전제한 것이므로 이때의 서명은 기본표목이 아닌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일부 지시기호의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본표목이 없다면 문헌의 배열기준이 되는 도서기호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도서관들이 기본표목을 도서기호 매김의 대상으로 하는 저자기호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표목이 없다면 저자기호를 사용하는 도서관의 경우 기본기호 매김의 대상이 없게 되므로 도서기호 매김의 방법을 따로 정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본래부터 기본표목과 관계가 적은 수입순

29) 이경호, "한국문헌목록정보(KORMARC)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3호(1999. 9), pp. 8-13 참고.

30) 玄圭燮, "자동화목록법(MARC)의 저자표시 독립원칙 : 속성 데이터 편성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연속적 연구 I", 《도서관》 v. 47, n. 4(1992. 7.8), pp. 20-21.

기호나 연대순기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수입순기호를 사용하면 기본표목이 없어지는 것과는 무관해지고 기호 매김의 절차는 간편해지겠지만 도서관간의 청구기호 통일성이나 유사성이 없어지며, 또한 저자명이나 기타 인명에 의해 집중할 필요가 있는 종류의 문헌, 예를 들면 문학작품이나 전기자료 등의 도서기호 매김은 방법을 따로 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저자기호법을 그대로 사용하되 기호 매김의 대상어를 7XX필드 등 종래의 기본표목에 상응하는 데이터가 기록되는 필드에서 지시기호로 구분해주는 방법³¹⁾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무기본표목에 관한 정책의 확정이나 이에 따른 MARC 포맷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과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표목 선정 규칙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표목에 관한 국가적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USMARC 계열의 포맷으로 편목하는 많은 도서관들이 기본기입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NCR 1987년 판과 그 개정판(1994년 판)에서 “단일기입제 목록을 위한 표목 선정표”를 부칙으로 두고 있는 것이 하나의 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표목의 형식에 관한 문제

KCR 3판은 표목과 배열에 관한 규정이 빠진 미완성 판이다. 이러한 형편은 3판의 교정수정판인 3.1판이 간행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KORMARC 기술규칙(단행본용)도 그 목적과 범위에서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기술규칙-단행본은 . . . 기술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각 요소의 기술 순서를 정하며, 기술에 따른 각종 구두법과 적용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서지기술의 표준화를 기하고 자동화를 촉진시켜 도서관 및 정보관리 기관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필수적인 사항만을 규정한 국제표준서지기술-단행본-(ISBD-M)의 기술 순차와 구두법을 그대로 준수하되 한국문헌의 특성에 알맞도록 서지 활동업무에 요구되는 모든 기술 사항을 규정한다”³²⁾라고 밝히고 있으며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정은 없다.

KCR 3판이나 KORMARC 기술규칙 모두 지금까지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목록의 표준화는 기술사항의 통일만으로 가능하며 특히 자동화목록 환경에서 표목은 단지 검색을 위한 색인어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전거과일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완벽한 전거과일이나 전거통제시스템이 만들어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목록 검색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표목형식의 표준화는 대

31) R. Conrad Winke, 앞의 논문, p. 68.

32) 국립중앙도서관 전산실 편,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 : 단행본용 : 예비노트 보완판』.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85. p. 1.

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단체명이나 회의명과 같이 그 형태가 다양하고 구조나 선택의 과정이 복잡한 표목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가중된다. 또한 자동화목록에서 전거파일과 전거통제시스템으로 검색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전거레코드를 작성하기 위하여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칙은 불가결한 것이다.

표목은 단순히 목록의 검색을 위한 키로서 뿐만 아니라 도서관간의 유통과 통합을 전제로 하는 MARC 레코드의 일부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MARC 레코드들은 도서관간에 교류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표목의 형식에 관한 표준적 규칙의 미비는 목록레코드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MARC 레코드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표목에 관한 규정에는 표목의 형식 외에 기술사항으로부터 표목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확정, 다중언어로 된 자료의 표목언어에 관한 규칙, 번자규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서명, 잡제, 다양한 저자의 유형, 총서명 등에서 표목으로 채택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이나 번역서, 대역서 등 다중언어로 된 문헌의 표목언어 채택에 관한 규칙, 다른 언어로부터 로마자 혹은 한글로의 번자규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능한 한 목록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 표목의 채택이나 작성을 줄이고 기술사항과 더불어 표목형식이나 종류의 통일을 기할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목록의 검색효율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IV. 기술규칙의 문제

KCR 3판과 KORMARC 기술규칙은 모두 ISBD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기본 골격이나 규칙의 대부분은 일치하지만 세부적으로 상치되는 곳도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

KCR 3판과 KORMARC 기술규칙의 조항별 차이점은 김치우에 의해 비교 분석된 바 있다.³³⁾ 이러한 차이 중 서지기술원칙의 입장 차이에 기인하는 것들도 있다.

KORMARC 기술규칙(단행본용)을 제정한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자동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현규섭은 서지기술의 원칙을 다섯 가지로 제시한 바 있는데³⁴⁾ 그중 하나로 '역사성의

33) 金致雨, "韓國目錄規則 3版의 特性과 效率性", 《慶星大學校論文集》 第11輯 3卷(1990), pp. 219-224.

34) 서지기술의 원칙을 역사성의 원칙, 사실통지의 원칙, 소거가치의 원칙(기술되는 요소의 배치순서는 한 요소가 소거될 때 미치는 전체기록에 대한 가치로서 판정한다), 식별성의 원칙(소거가치가 동등한 요소의 배치순서는 효과로서 차등지운다), 표준성의 원칙(한 목록자에 의하여 작성된 서지기술은 다른 목록자에 의

원칙'을 들고 있다. 이것은 서지기술이 한 문헌의 역사적 존재 사실을 기록하는 증명 행위로서 기술된 목록은 한 시대, 한 시점에서 발생한 문헌의 존재를 기록하는 행위의 소산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기록은 영구적인 것으로서 설혹 문헌 그 자체가 인멸되더라도 기술된 목록만은 남는다는 사실에 기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ISBD를 비롯한 기존의 목록규칙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준용되어 왔다. 그러나 장서량의 증가로 인하여 동양적 목록의 개념, 즉 "목록은 문헌의 역사적 기록이어야 하며 목록이야말로 후대에 유일한 역사적 증거로서 남겨질 사실의 기록"³⁵⁾이라는 개념은 점차 약화되고 문헌들 간의 식별기능이나 검색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어 왔다.

현규섭은 ISBD의 서명이나 부서명을 축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그 예로 들었다.³⁶⁾

ISBD나 이를 준용한 KCR 3판에서 서명이나 부서명이 길 경우 이를 줄여서 적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통상적 개념의 목록기술 분량에 비해 서명이 너무 길어서 불균형을 이루거나, 특히 카드목록의 기록공간 문제 때문에 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축약규정은 서지기술의 역사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서명이 너무 길어서 야기되는 불균형과 공간의 문제는 목록의 자동화와 더불어 사실상 사라졌다. 컴퓨터에 의해 작성되는 목록에서는 기록공간의 문제 때문에 기술사항의 길이가 제한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서지기술의 역사성, 즉 서명이 문헌의 역사적 존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정보원에 나타난 원형대로 기술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축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헌의 역사적 기록이라는 목록의 한 기능을 약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록공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진 자동화목록의 환경에서는 카드목록의 제한성 때문에 유래한 기술사항의 축약규정들, 즉 서명과 함께 저자명, 판차, 출판사항 등의 기술사항에서 축약이나 생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가급적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KCR 3판과 KORMARC 기술규칙의 구두점 사용법은 다같이 ISBD의 구두점 사용법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거의 일치하지만 부분적으로 상이한 곳이 있다. 목록규칙에서 구두점은 기술요소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MARC에서는 기술요소들이 각종 표지기호에 의하여 구분되기 때문에 구두점의 중요성은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구두점의 차이가 해당 데이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예가 있다.

KCR 3판에서는 ISBD의 규칙을 준용하여 서명과 저자를 하나로 묶어 서명저자사항으로 하였으며, 같은 역할을 한 저자들은 하나의 문장으로 취급하여 접속사(and 등)나 쉼표 등으로

하여 재 반복되더라도 언제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등 5가지를 들고 있다. 玄圭變, "書誌記述의原則確立을 위한 覺書", 《도서관》 v. 38, n. 1(1983), pp. 6-7.

35) 위의 논문, p. 9.

36) 위의 논문, p. 11.

연결하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한 저자 앞에는 반쌍점(.)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KORMARC 기술규칙에서는 “저자표시는 독립된 사항이다”³⁷⁾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 기술의 형식은 서명과 저자를 하나의 사항으로 묶어 둔 ISBD의 그 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다만 동종의 기능을 갖거나 서로 다른 기능을 갖거나 관계없이 모든 저자사항은 각각 반쌍점을 사용하여 연결함으로써 그 역할에 관계없이 각각의 저자가 독립성을 갖도록 하였다.

KORMARC 기술규칙의 이같은 사정에 대하여 현규섭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당시에든 저자표시를 독립시켜 별도의 사항(박봉석의 규칙에서과 같은)으로 규정할 수 없었다. 이것은 영어의 어문구조에 입각한 저자표시형식으로 제정된 국제규격에의 무조건 굴복이었다. 그러나 이 규칙에서는 최소한의 저항을 나타내고 있다. 저자표시를 한 문장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독립된 저자군으로 보아 다수 저자는 반쌍점(.)으로 일일이 구분하였던 것이다.

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은 최소한 우리의 전래된 목록작성방식을 승계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수용하고자 노력하였다.³⁸⁾

이와 같은 저자사항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자동화목록의 포맷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KORMARC와 USMARC 포맷의 서명저자사항 기술형식의 예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KORMARC의 기술 예>³⁹⁾

245 10 \$a(新編)工業熱力學/\$d盧錫株 ; \$d柳圭鉉 ; \$d宋基弘 共著

<USMARC의 기술 예>⁴⁰⁾

245 00 †aIsland series. †pPenrhyn, bathymetry/ †ccompilation by K.B.Lewis, P.Larkin, and T.T.Rongo ; bathymetric compilation and contouring by K.B.Lewis, T.T.Rongo and A.T.Utanga ; drawn by S.C.Glover.

KORMARC의 예에서는 역할의 이동(異同)에 관계없이 각각의 저자들을 반쌍점과 식별기호 \$d에 의해 구분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USMARC는 문장의 구조나 서명사항 뒤에 이어지는 저자사항의 첫 문자가 소문자인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저자사항이 독립된 기술사항이 아님

37) 국립중앙도서관 전산실 편, 앞의 책. p. 13.

38) 玄圭燮, “자동화목록법(MARC)의 저자표시 독립원칙 : 속성데이터 편성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연속적 연구 1,” 앞의 논문, p. 11.

39) 국립중앙도서관, 앞의 책. p. 70.

40) Network Development and MARC Standard Office, 앞의 책. p. 245-P.5.

을 알 수 있으며 전체 저자사항에 식별기호 꺾 하나만 주어져 있다.

KORMARC의 이같은 규칙은 현재 245필드가 그 지시기호에 의해 본서명의 표목지시 여부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장래에 저자사항의 독립 필요성과 저자사항으로부터 직접 표목지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규칙은 현재 기술사항으로만 존재하는 저자사항을 또 다른 필드에 의하지 않고 직접 접근점이 되게 하는 것, 무기본표목원칙 등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SBD와 KCR 3판에서 저자사항에 기술할 수 있도록 한 '저자표시의 성격을 띤 일반어귀'를 저자사항에 기술하지 않고 주기사항에 기술하도록 한 KORMARC 기술규칙의 다음과 같은 규정도 저자사항에는 표목으로 나갈 수 있는 요소만을 기술하겠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1.5.1.1 저자표시 성격을 띤 일반어귀

표제면이나 판권지에 저자표시의 성격을 띤 어귀들(예: 성경연구모임 또는 노르웨이어의 본문으로부터 옮김 등)은 원칙적으로 저자표시에 기술하지 아니하고 주기사항에 기술한다.

저자표시의 성격을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아래의 원칙에 준한다.

- 가) 그 일반어귀가 저자명이나 단체명으로서 그것이 저작자임이 분명할 때에는 저자표시로 삼아 기술한다.
- 나) 그 일반어귀가 단순히 저작의 동거나 구호, 헌사 등일 때에는 이를 주기사항에 기술하거나 잡제로 옮겨 기술한다. 그러나 주기사항이나 잡제로도 기술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생략할 수 있다.

동일한 목록규칙을 사용하여 작성되는 목록은 목록작성자가 다르거나 목록작성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목록기술의 표준화 문제는 인간의 시각적 인지능력에 의하여 인식되던 카드목록이나 인쇄목록에 비하여 논리적, 기계적 비교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동화목록의 환경에서 더욱 예민한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MARC 환경에서는 목록레코드의 도서관간 혹은 국제간의 교류와 통합이 전제되므로 표준화 문제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자동화목록을 위한 기술규칙은 목록자 개인에 의한 임의적용이나 판단의 가능성이 더욱 배제되어야 하며 어떤 목록자가 편목하여도 같은 문헌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레코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확실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여느 목록규칙과 마찬가지로 KCR 3판이나 KORMARC 기술규칙도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규칙의 곳곳에서 여전히 목록자의 임의적 판단이나 적용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다.

KCR 3판과 KORMARC 기술규칙에서 목록자의 자의적 판단을 요구하는 문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구체적 수량 결정이 모호한 어귀: '너무 긴', '긴', '여러 구절', '세기에 너무 많다고 인정되

는' , '적당히 줄여서', 등.

- 가부의 판단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어귀 : '~할 만한 가치나 무게를 지닌', '중요한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할 필요가 있는', '필요에 따라 적절히', '식별 상 모호성이 없는 한', '식별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식별 상 필요한 요소가 아닌 한', '식별 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 '한계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현저한 변화' 등.

- 임의적 적용이 가능한 어귀 : '~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등.

목록규칙에서 이러한 어귀들은 결국 목록자의 개인적 성향이나 지적 수준, 그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목록의 통일성을 결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귀들은 가능한 한 목록자에게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개폐되어야 할 것이다.

KORMARC 기술규칙이 임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들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과 부서명을 축약할 수 없도록 하여 목록자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앤 것,⁴¹⁾ 문자수에 의한 관칭과 관제의 획일적 구분⁴²⁾이나, 부서명과 잡제의 구분⁴³⁾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등은 이러한 사실들의 적부와 관계없이 서지기술의 통일성을 갖게 하는데 한 걸음 더 근접한 시도임은 분명하다.

V. 목록 디스플레이양식에 관한 문제

KCR을 비롯한 전통적 카드목록규칙들은 주로 카드 상에 데이터가 기술된 위치나 순서, 구두점 등에 따라 그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목록규칙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는 낯설거나 난해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온라인목록시스템의 목록 디스플레이양식은 카드목록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개의 온라인목록시스템에서는 먼저 검색조건에 부합하는 문헌들의 간략목록을 리스트형식으로 화면상에 디스플레이한다. 간략목록은 주로 서명, 저자명, 발행사항, 청구기호, 소장처 등의 간단한 서지사항으로 구성되는 간략목록레코드들을 한 화면에 10개 정도씩 묶어서 보여 주며 이러한 화면들은 앞뒤로 훑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각각의 상세목록레코드는 간략목

41) 국립중앙도서관전산실 편, 앞의 책. p. 8, 51.

42) 위의 책. p. 31.

43) 위의 책. p. 54.

2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0권 제 4호)

록화면으로부터 링크되어 있어서 간략목록으로부터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3>과 <표 4>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을 네트워크 상에서 검색한 결과이다.⁴⁴⁾

<표 3> 저자명 '이광수'로 검색된 간략목록화면 중 첫 번째 화면

데이터베이스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일반자료.

검색질의어: AU: 이광수

검색건수: 293

	서명	저자명	발행자	발행년	청구기호	있는곳	원문
1	Structured COBOL	黃熙隆 ; 李光秀 共著	東逸出版社	1984	028.64-황726사	철학자료실	없음
2	TV文學館 結作선. 3	이광수...[등저]	대학문화사	1983	3635-165-3	중앙대출대	없음
3	개척자	이광수 지음	우신사	1985	813.6-이151ㄷ-3	문학자료실	없음
4	개척자	이광수 지음	一信書籍出版社	1995	813.6-이151ㄷ ㄷ	문학자료실	없음
5	관광 안내원이 되는길	이광수 [편]	아리오	1987	326.39-이151ㄱ	사회과학자료실	없음
6	群像	李光洙 著	漢城圖書	1954	N62-58	중앙대출대	없음
7	群像	李光洙 外著	[발행자불명]	1976	3634-65-2	중앙대출대	없음
8	그대의 진진을 보리라	異光洙 著	새時代	1996	330.4-이151ㄱ	사회과학자료실	없음
9	그리운 아버님 春園	이정화 지음	우신사	1993	813.6099-이151ㅇ	문학자료실	없음
10	그 女子의 一生. 4	李光洙 著	又新社	1979	N62-249-4	중앙대출대	없음

<표 4> 간략목록화면 중 3번을 눌러 나타난 상세목록화면

데이터베이스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일반자료

검색질의어: AU: 이광수

검색건수: 293

목록번호: 3

청 구 기 호	813.6-이151ㄷ-3
서명/저자명	개척자 / 이광수 지음
발 행 사 항	서울: 우신사, 1985
형 태 사 항	202p. ; 19cm
총 서 사 항	춘원문고 ; 03
자료있는곳	문학자료실

44)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소장목록: 일반자료[On-line], Available :

<<http://www.dlibrary.go.kr/cgi/zgateway>> (1999. 9. 30)

대부분 온라인목록시스템들은 간략목록이나 상세목록 모두 서명, 저자, 출판사항 등 기술항목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밝혀 표 형식으로 나타내 주고 있으므로 카드목록에서와 같이 그 기술 순서나 위치에 의하여 인식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시된 목록은 목록규칙에 관한 초보적 지식조차 없는 이용자에게도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한국목록규칙 3판, KORMARC 기술규칙 모두는 여전히 기술사항의 문단 구분이나 기선 사용법, 기재 위치나 순서, 구두점의 사용법 등 카드목록 체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은 이용자 중심의 규정이라기보다는 목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규정이라 생각된다.

온라인목록의 구두법과 문단 구분법에 대하여 정필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온라인목록에서는 ISBD의 구두법 중에서 마침표 빈칸 붙임표 빈칸(. -)의 구두점은 불필요한 동시에 기술사항마다 문단을 달리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타의 구두점도 일반적인 관행과는 달리 모든 구두점이 각 사항의 앞에 온다는 개념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구두법이나 문단구분법은 저자표시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AACR의 초판으로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⁵⁾

자동화목록을 위한 목록규칙에서는 카드목록에서 데이터의 식별을 위하여 강조되었던 구두점이나 문단 구분, 기입 형식 등의 규칙들이 과감하게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목록의 화면 출력 예에서 보았듯이 목록의 형식이 카드목록과 같은 기선 사용법에 제한 받고 있지 않으며, 기술사항이 그 순서나 위치, 사용 구두점 등에 의하여 인식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두점에 의하여 기술사항의 종류를 구분하기보다는 오히려 구두점에 의하여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서로 다른 기술사항들, 예를 들면 서명저자사항이나 출판사항과 같은 것들을 각각 따로 떼어 독립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온라인목록의 화면상 디스플레이양식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도서관 혹은 패키지를 만드는 상업적 기관에 따라 제 각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네트워크 상에서 다수 도서관의 목록을 거의 시차 없이 검색할 수 있게 된 온라인목록 환경에서 도서관들의 온라인목록 디스플레이양식이 제 각각인 것은 카드목록의 형식이 통일되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카드목록의 기술양식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목록의 디스플레이양식을 목록규칙에서 규정하고 목록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기관들이 이를 준수케 함으로써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

45) 정필모, 앞의 논문, p. 10.

VI. 목록규칙과 MARC 포맷의 통합 필요성

MARC 포맷은 카드목록의 기술사항을 기반으로 이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자동화목록 형식이다. 오동근은 카드목록에 기술되는 데이터요소와 USMARC 포맷의 데이터요소들을 대비하고 MARC 레코드가 목록카드의 기재방식에 따라 카드상의 기재사항을 차례대로 그룹화하고 더욱 세분화하여 작성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⁴⁶⁾

MARC 포맷은 전통적 목록규칙에 의해 작성되는 카드목록의 서지데이터들을 고스란히 수록하고 있는 외에 이 서지데이터들을 기계가독형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규칙들을 담고 있다. 또한 카드목록에 비하여 컴퓨터를 활용함으로써 생겨나는 MARC의 새로운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 기입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다.

MARC의 구조나 기술요소를 전통적 목록규칙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KORMARC 포맷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USMARC 포맷의 기본적 구조를 토대로 만들어진 KORMARC 포맷은 리더(leader)부, 디렉토리(directory)부, 그리고 가변길이필드(variable field)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⁷⁾

KORMARC의 리더부는 개별 목록레코드의 첫 번째 필드로서 24자로 편성된 고정길이필드(fixed field)이다. 여기에는 레코드길이, 레코드상태, 레코드형태, 서지수준, 지시기호 자리 수, 식별기호 자리 수, 데이터기본번지, 입력수준, 목록기술형식, 연관레코드 조건, 엔트리 맵 등이 기록된다.

디렉토리는 각 MARC 레코드 내에 있는 가변길이필드마다 하나씩 배정된 '디렉토리항목'이라는 고정길이필드로 구성되며 각각의 디렉토리항목은 해당 가변길이필드의 길이와 시작 위치를 나타낸다.

가변길이필드는 제어필드와 데이터필드로 구성된다. 제어필드에는 제어번호, 최종처리일시, 링크필드, 형태기술필드, 부호화정보필드 등이 속해 있다. 데이터필드에는 카드목록의 기술사항들이 기록된다.

같은 종류의 기술사항이라도 이들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서로 다른 표시기호를 갖기도 한다. 예를 들면 총서사항의 경우 그대로 표목으로 부출되는 총서사항은 표시기호 440에, 부출되지 않거나 다르게 부출되는 총서명은 표시기호 490에 기록된다.

KORMARC에서는 필드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표시기호(Tag) 외에도 각 필드에 속한 데이

46) 오동근, 앞의 논문, p. 40.

47) 국립중앙도서관, 앞의 책, pp. 3-32 참고.

터들의 성격을 나타내거나 데이터의 종류, 단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시기호(indicator), 식별 기호(subfield code), 필드종단기호(field terminator), 레코드종단기호(record terminator)와 같은 표지기호들을 사용한다.

한국목록규칙을 비롯하여 카드목록을 염두에 둔 목록규칙들은 대개 기본표목의 선정, 표목의 형식, 기술목록규칙, 배열원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⁸⁾ 이러한 목록규칙들과 위에서 살펴본 KORMARC 포맷을 비교해 보면 기존의 목록규칙만으로는 MARC 레코드를 작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기존의 목록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수의 기입요소들이 MARC 레코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MARC 형식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목록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형식이나 구두점 외에 필드마다 표시기호, 지시기호, 식별기호 등의 표지기호에 관한 규칙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MARC 레코드의 작성을 위한 규칙이 이원화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MARC 형식의 목록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규칙을 중심 한 목록규칙 외에 별도의 추가 규정들이 필요하며 이것은 현재 MARC 포맷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MARC에 의한 목록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원화되어 있는 전통적 목록규칙과 MARC 포맷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에서 제정될 새로운 표준 목록규칙도 KORMARC 포맷을 위한 추가 요소를 포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II. 맺는 말

자동화목록의 도입과 더불어 한국의 도서관에서 사용되는 목록규칙들이 다원화됨으로써 각종 도서관들이 작성하는 목록레코드가 표준화되지 못하고 있다. 자동화목록의 환경에서 도서관간의 목록의 비표준화는 목록정보의 교류나 통합을 어렵게 함으로써 편목비용의 증대와 더불어 여러 면에서 목록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목록의 표준화를 위하여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목록규칙들을 통합한 국가적 표준 목록규칙의 제정이 시급하며, 이에 참고코자 국내의 각급 도서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

48) 『한국목록규칙』 수정판(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修正版.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6)은 1. 기본기입의 선정, 2. 표목 형식, 3. 기술목록규칙 등의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3판은 표목 부분이 빠진 체 1. 기술, 2. 표목올림지시 부분만으로 되어있다. 일본목록규칙 1987년판과 1994년 개정판은 제1부 기술, 제2부 표목, 제3부 배열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미목록규칙 2판과 1988년 개정판은 Part I Description, Part II Headings, Uniform Titles, and References로 구성되어 있다.

고 있는 KCR 3판과 KORMARC 기술규칙, KORMARC 포맷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과 그 대안을 알아보았다.

첫째, KCR 3판이 기술단위방식을 지향함으로써 아직 기본표목필드를 갖고 있는 KORMARC 포맷의 입장과 상반되고 자동화목록의 환경에서 무기본표목이론이 점차 설득력을 갖게 되어 도서관들이 기본표목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자동화목록의 환경에서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현행 MARC 포맷의 기본표목필드 처리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 장기적으로는 복잡한 OXX필드의 일부 데이터를 1XX 필드로 옮기는 포맷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포맷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자료를 서명기입방식으로 입력하는 것이 현재의 포맷을 그대로 유지한 채 무기본표목원칙을 수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KCR 3판이나 KORMARC 기술규칙 모두 표목에 관한 규칙이 미비하다. 표목형식의 통일은 목록레코드의 검색 효율뿐 아니라 표준화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

둘째, 현행 기술목록규칙들 간에 상치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 중 일부는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도 있다. 목록 표준화를 위해서는 이들 규칙의 통일이 필요하다. 새롭게 만들어질 기술규칙은 자동화목록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목록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서지기술의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기술규칙들의 많은 부분에서 허용하고 있는 편목자의 임의 적용이나 판단의 가능성을 가능한 한 배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온라인목록의 디스플레이형식이 카드목록의 그것과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 카드목록에서 중요시되었던 기선의 사용법, 기술사항의 순서나 위치, 구두점 등의 의미가 크게 약화되었으므로 이들에 관한 규칙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오히려 도서관별로 개별화되고 있는 온라인 목록의 디스플레이양식을 통일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MARC 포맷에는 카드목록이나 인쇄목록의 기술요소 외에 추가로 기술되는 요소들이 있다. 따라서 MARC 형식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목록규칙과 더불어 MARC 포맷에서 정한 규칙들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목록규칙의 이원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목록규칙과 MARC 포맷을 단일 규칙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